

“책은 문화적 공공재…무분별한 출판은 毒”



강광실 세계출판사 대표가 경기도 피주출판에 있는 사옥 편집국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피주=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컬처 & 피플

세계출판사 대표 강광실



“좋은 책을 내는 것도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쓸모없는 책을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판이 흥수를 이뤄 독자들의 선택능력을 마비시키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죠.”

경기도 과천시 문발동 과주출판도시에서 만난 세계출판사 강광실(57) 대표의 철학은 단호했다. 돈과 유행을 좇아 책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꼭 필요한 책, 반드시 있어야 할 책을 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강 대표는 어린이 책에 관심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아는 출판인이다. 세계출판사가 누구에게나 친숙한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마당을 나온 암탉’ 등 유아·아동도서의 스테디셀러이자, 탈리언셀러를 출간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지난 1992년 출간한 ‘반갑다 논리아’ 시리즈, 한국사를 신문형태로 정리한 ‘역사신문’은 ‘단타 출판’이 대세를 이루던 한국출판계에 기획출판을 선보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전남여고를 졸업한 강 대표는 한국 출판계의 대모로 통한다. 그는 박초 홍명희(1888~1968) 선생의 손자를 평양에서 만나 저작권계약을 체결, ‘임격정’을 출간했다. 남한의 출판권자와 북한의 출판권자(저작권자)가 저작권 사용료와 출판권 설정 계약을 맺은 것은 한국 출판사상 처음이었다. ‘한국생활사 박물관’ 시리즈는 비주얼로 가득한 지식(紙上) 박물관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금까지 1200여권의 책을 만들었고, 지난 2008년 시사저널이 선정한 ‘한국을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 출판 부문에서 박광호 민중사회장과 나란히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출판사 경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죠. 세계출판의 창립자는 김영종 선생(남편)입니다. 전남대 73학번인 김 선생은 한봉이 형(고 윤한봉 선생을 지칭)이 아끼던 후배였지요. 그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취업을 포기하고 1982년에 차린 회사가 사회과학 전문출판사인 세계출판이었지요. 책으로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김 선생이 ‘새날의 길잡이’, ‘일하는 즐거움,

철학하는 기쁨’ 등 책을 출간할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세계출판사 편집부장으로 입사해 인연을 맺었죠.”

세계출판사는 반포도서가 평균 25%에 달하는 국내 출판계의 사정과 달리, 그 수치를 한 자릿수로 유지하고 있는 강한 회사다. 반포율이 5%대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다. 출판계에서는 기적에 가깝다고 한다.

“처음에는 ‘안전운전 365일’, 어학, 의학 관련 서적 등 다양한 분야에 손을 댔으나, 시원치 않았지요. 결국, 기획과 내용에서 특화·명품전략으로 방향을 바꿨죠. 아동·청소년, 역사, 인문서적으로 방향을 굳힌 거죠. 그러다 보니 책은 느

누에게나 신선(辛酸)의 계절은 있다. 강 대표도 예외는 아니다. 한신대 신학과, 이화여대 대학원 기독교학과를 졸업한 ‘초보경영인’이 출판계에서 겪은 일은 난관은 아니었다.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은 생사(生死)를 알 수 없어 가슴 졸이던 ‘사랑’이었다. 재학 중이던 전남대를 다닐 수 없어 한신대에 편입한 남편 김영종 선생이 학생운동으로 수배와 검거, 도피를 반복하던 때다. 그는 “그가 경찰에 붙잡혔을 때 살아있음을 확인해 차라리 마음이 놓였다”고 씩씩하게 웃었다. 김 선생은 현재 ‘실크로드 길 위의 역사와 사람들’, ‘티벳에서 온 편지’ 등을 출간하는 등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전남대 운동권 남편 잦은 투옥으로 출판사와 인연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마당을 나온 암탉’ 등 출간

“사람 사는 세상으로의 연대, 책으로 이야기 하고 싶어”

리게 만들어지고, 비용은 많이 들어 고전했어요. 그 열매가 기획출판물인 ‘한국생활사 박물관’, ‘역사신문’, ‘아틀라스 시리즈’ 등이 스테디셀러가 돼 결실을 맺은 겁니다.”

출판계에서 세계출판사의 인문·역사서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역사신문’, ‘세계사 신문’을 바탕으로 역사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현재 세계사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등 20여종을 헤아리는 중앙아시아 관련 서적은 ‘컬렉션’이라 불려도 좋을 명저들이다. 서구 중심의 시각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중앙아시아를 재조명하는 시리즈물이다.

강 대표는 세계출판사를 상법상 법인(法人)이 아닌 사람들이 연대하고 인문정신으로 교감하는 삶터로 꾸려가고 있다. 대표이사 출판물 독단하는 의사결정 방식은 이 회사에 없다. 편집부는 물론 회계 부문 담당자까지 출판대상 원고를 읽고 난 뒤 의견을 모아 출간을 한 적도 있다.

출판인으로서 강 대표는 “책을 문화적 공공재로 봐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책을 냉혹한 시장의 논리에 맡겨서는 결코 문화대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강 대표는 우리말을 사랑한 아버지 덕분에 ‘말실’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얻었다. ‘말실’을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와 연결짓는 역측도 있으나, 실은 맑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늘 변화를 추구하는 강대표는 그 변화의 출발점을 ‘현재’라고 강조한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곳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책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고립되지 않고 소통하는 인문정신을 갖도록 말이지요. 너무 어려운 일이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지역사를 정리한 책을 내고 싶습니다. 교과서에 언급되는 곳은 유명한 관광지나 명승지뿐이거든요.” /피주=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유·스퀘어문화관 갤러리 토크 참가자 모집

광주유·스퀘어문화관이 오는 30일부터 5월13일까지 열리는 ‘2014 노랑·연두·초록’전 갤러리토크(체험워크숍)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그린스타트네트워크, (재)광주시 기후변화대응센터, 그린캐버스, 숲과문화학교, 지구틀위한다자이 등이 주최·주관하고, 유·스퀘어문화관이 후원한다.

그린디자이너 김우진씨가 기획한 이번 전시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린디자이너 18명의 대표작 등 모두 3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기간 매

일 한 주제를 가지고 체험워크숍을 진행하는 갤러리토크가 열린다. 생태계 거미줄 놀이, 페트병 물뿌리개 만들기, 펄린 블록 쌓기, 친환경 티셔츠 그리기 등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25일까지 이름·나이·전화번호·참여일시 등을 기재해 이메일(gjgreenstart@greenstart.kr)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www.usquareculture.c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974-382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미인도 벨라스케스 그리고 개미이야기’

대만서 만나는 ‘이이남’

당대미술관, 6월15일까지 한국 현대미술 그룹전

대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가 참여한다. 대만의 대표적인 미술관인 타이페이 당대 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Taipei·이하 MO-CATP)은 19일부터 6월15일까지 두 달 간 한국 현대미술 그룹전 ‘K-P.O.P.’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이이남씨를 비롯해 세계무대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초대됐다. 이번 전시는 평론가이자 큐레이터로 활동 중인 윤진섭씨가 총감독을 맡았으며 전시기간 중 포럼과 워크숍 등을 열어 한국 문화예술을 대만 현지에서 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이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동양의 고전회화에 현대적인 해석을 더한 미디어 작품 3점을 선보인다. ‘조춘도-동방의 빛’은 북송시대의

곽희 작품을 모티브로 제작된 작품으로 옛 시대의 곽희가 감흥을 받아 그린 ‘조춘도’를 현대적 감흥과 관점으로 재해석해냈다. 또 건축이나 인물 묘사가 세밀했던 이재의 작품을 모티브로 자연의 다양한 변화를 화면에 담은 ‘산장고일도’와 스페인 바로크를 대표하는 17세기 유럽회화의 중심적인 인물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신사임당의 미인도와 나란히 배치한 작품도 선보인다.

이이남씨는 “세계에 알려진 대중문화가 한국문화의 전부로 인식되는 한계성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현대미술의 예술성과 가치를 대만 현지에서 널리 알릴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MOCATP는 매년 각 나라의 문화예술을 선보이면서 교류·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선정 국가는 한국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광주맛집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7위), 2008년(27위), 2010년(37위), 2012년(47위), 2014년(57위)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율동로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